

아산 신항리 큰새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마을) 건축특성 조사연구

이 왕 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강 인 구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문 태 모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송 연 아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주제어 : 윤보선, 신항리, 근대마을, 건축특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큰새말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마을로 현재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비롯하여 윤일선 가옥, 윤제형 가옥, 윤승구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유물과 경관이 현존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세 가옥은 규모가 일반 소규모 주택과는 달리 조선말기의 대규모 반가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옥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내 일부 가옥 또한 근대기의 역사와 전통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은 전통적인 마을의 배치와는 달리 조선말기와 근대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전통 한옥부터 현대 주택까지 근 200여 년간 건축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은 일찍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윤보선 전 대통령이 태어난 마을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산 신항리 큰새말에 대한 건축특성 조사/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큰새말(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마을)이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03월 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분석 자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배치상황에 대한 물리적 정보획득, 인터뷰를 통한 인문적 정보획득, 문화재로

8 논문

지정된 주택의 실측조사, 문화재 외 마을 내 주택 실측조사이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 주택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마을 내 지정문화재의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였다.

2. 신항리 큰새말 연혁과 건축현황

2-1. 신항리 큰새말 마을연혁

신항리 큰새말이 언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구전되는 마을의 형성 변천이야기도 아주 적고 불명확하다. 이 마을은 원래 경주 손씨와 양씨들의 터전이었으며, 임진왜란 때 큰 화재로 마을이 전소되었고 이후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어서 신촌이라 불렀다고 한다.¹⁾

신항리는 신리와 항각리의 지명이 합쳐져 붙여진 이름이다. 신리의 명칭이 국가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1759년)와 호구자료인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서이다. 『여지도서』 충청도 천안 모산면(毛山面) 조에 신리와 항각리가 보이는데, 신리는 관문으로부터 30리에 있는데 34호가 살며, 남자는 53명 여자는 56명이라 기록되었고, 항각리는 같은 거리에 총 32호가 살며 남자가 51명 여자가 5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천안군 모산면에 속했던 마을로 『毛山面 : 봉오리 신대리 합전리 창리 산리 송산리 시포리 신리 문성리 항각리 장재동리 元戶 245 口 887(남 445, 여 442)』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 시기에 신리는 이웃한 항각리, 문성리와 함께 하나의 마을로 편제되어 있었다.

신항리가 속했던 모산면은 현재는 아산시에

속한 지역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천안의 월경지로 한말까지 존속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월경지가 그러하듯이 아산만에 연한 둔포 일원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면이기도 하다. 삽도에서 보듯이 해동지도나 충청도읍지 천안군 지도에는 모산면에 사창과 대동창, 둔세창, 그리고 좌기청이 그려져 있다. 세곡과 물산의 집산지로서 특별 관리되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조선후기의 신리는 1914년 일제의 지방제도 개혁에 따라 신촌, 어인동, 문성리, 항각리를 합하여 신항리로 개칭된다. 1917년 9월 25일 군면 통폐합 과정에서 신항리는 아산군 둔포면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아산군 일북면의 백양동과 천안군 모산면의 18개리가 합쳐 둔포면이 된다. 둔포면은 당시 둔포, 송용, 시포, 신법, 신남, 신항, 관대, 산전, 봉계, 운교, 석곡, 운용, 신왕, 염작의 14개리로 편제되었다. 신항리는 1구 신촌(새말)과 2구 항각골로 나뉘는데, 새말에는 큰새말, 작은새말, 은골, 사재로 나누어져 있고, 가장 규모가 큰 큰새말은 다시 윗말, 아랫말, 동편말, 잣가마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²⁾



<그림 1> 천안군지도의 모산면 부분도

1) 온양문화원, 『온양 아산 마을사 2권』, 온양문화원, 2001

2) 김정근, 『내고향 신항리, 그 삶의 터전』, 흥문상사, 2007

2-2. 신향리 큰새말의 배치

마을은 가까운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구릉 지형 지리조건을 가지고 있어 풍수적으로 입수배산 청룡백호를 찾기 어려운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의 입지가 전통적인 풍수개념과 달리 주위를 감싸는 지맥이 없는 곳에 자리한 것은 첫째, 넓은 들에 조성된 농지확보와 농경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마을의 번성은 도로사정과 교통수단이 편리해지는 근대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신향리 큰새말 항공사진

마을의 배치는 해평윤씨 입향조의 가옥인 윤승구 가옥을 중심으로 전면과 좌우로 펼쳐지는 형태이다. 즉 종가인 윤승구 가옥 좌우에 작은택이 지어지고 종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분가하여 윤치소(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가옥이 건립되었다.

해평윤씨 3가옥(윤승구, 윤일선, 윤보선 가옥)이 마을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 주변에 일가 친척의 가옥과 소작인들의 가옥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종가인 윤승구 가옥은 서남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후편에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종가 후편 구릉 위에는 교회당이 종가를 등지고 동북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교회당이 있던 자리는 윤치호가 생존해 있을 당시 건립했던 별장자리였으며, 이 위치는 마을에서 비교적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곳에 윤치호가 별장을 지었던 것은 주변의 농경지와 마을을 경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관가(觀稼)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 내 가옥은 대개 동남향, 남향, 남서향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중 종가인 윤승구가옥과 윤일선가옥, 윤제형 가옥은 서남향을 하고 있으나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는 동남향을 하고 있다. 즉 앞의 세 가옥은 후편에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배경으로 배치를 하였기 때문이고,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는 후편에 기멸만한 구릉이 없기 때문이다. 분가하면서 배치 계획을 할 때 지형조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건물을 앉혔다.



<그림 2> 신향리 큰새말 배치도(2009.02)

2-3. 신향리 마을의 건축 현황

신향리 마을의 세대 수는 97세대이고 인구는 약260명이다. (2008년 통계) 이 중 윤보선 대통령 생가 마을인 큰새말에는 모두 55가구가 남아 있다. 마을 내의 건축물은 대부분 주택이며, 공공시설로 마을회관, 교회 및 교회사

10 논문

택, 정미소, 창고 등이 있다. 마을 내 건축물 중에는 중요민속자료 제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비롯하여 윤일선가옥(충남민속자료 제12호), 윤제형 가옥(충남민속자료 제13호), 윤승구 가옥(충남민속자료 제15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가옥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종가(윤승구 가옥)에서 1901년에 건립한 박우현 가옥³⁾과 같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가옥도 있다.

마을 주변은 낮은 구릉과 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동남에서 서남에 걸쳐 멀리 낮은 산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앞으로 작은 실개천인 관대천이 동북으로 흘러 관대리에서 합수되어 서쪽으로 빠진다. 이 마을에는 약 55여 가옥이 낮은 구릉에 동남향, 남향, 서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주변에는 얇은 구릉지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으로 지형이 점점 낮아지고 마을 배후인 북측으로 지형이 높아지는 지형조건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지형에 의지하여 주택이 배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은 마을의 종가를 중심으로 동심원적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의 주택은 1800년대 후반 즉 조선 말기에 건립된 반가에서부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것까지 근 200여 년 동안의 주택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 내에 건립된 주택 양식은 조선후기 반가형태의 대농가를 비롯하여 일반 서민주택, 근대시기 농가주택, 산업화 시기 서민주택, 현대화 시기의 농촌주택, 간편한 재료를 이용한 경제적인 서민주택, 최근래의 전원주택 등 격동기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담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대규모 반가에서부터 아주 작은 소규모 농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주택에 사용된 주재료는 목재, 흙,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이며 지

3) 원래 이 가옥은 해평윤씨 종가인 윤승구 가옥이었으나 후일 박씨에게 매각하여 별개의 주택이 되었다.

붕재료는 전통한식기와, 시멘트기와, 슬레이트, 슬라브, 합석, 아스팔트싱글 등이 사용되고 있다. 마을 내 가옥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 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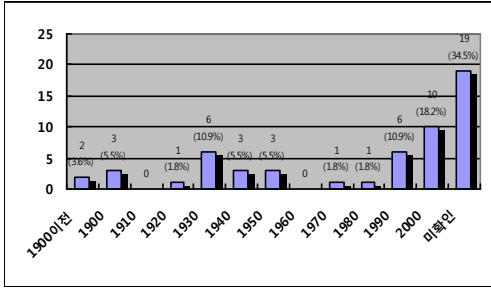
신항리 큰새말 내 주택의 정확한 건축 년대는 1844년(윤승구 가옥)부터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주택 중에는 건립 년대가 이처럼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지만 일부는 건립 년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연혁이 불확실한 것도 있다. 따라서 마을 내 주택 건립 년대 분석을 1900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건립된 것은 별도로 하고 그 이후에 건립된 것은 10년 단위로 분절하여 분석하였다. 건립 년도 기준은 현존하는 당해 가옥이 처음 지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조선후기의 건축물이 5가옥으로 9.1%, 일제강점기 시대가 10가옥으로 18.2%,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의 건축물이 4가옥으로 7.3%,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건축된 가옥이 7가옥으로 12.7%, 2000년대 이후 건축된 가옥이 10가옥으로 18.2%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미기재 및 가옥주의 조사 거부로 인한 건축년대 미확인 가옥이 19채로 34.5%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항리 마을의 건축물의 건축 년대는 조선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한국 농촌 주택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신항리 큰새말 가옥별 건축 년대

| 건축년대 | 1900 이전 | 1900 | 1920 | 1930 | 1940 | 1950 |
|------|------------|------|------|------|------|------|
| 가옥 수 | 2 | 3 | 1 | 6 | 3 | 3 |
| 건축년대 | 1970 | 1980 | 1990 | 2000 | 미확인 | 계 |
| 가옥 수 | 1 | 1 | 6 | 10 | 19 | 55 |

4) 예를 들면 가옥 중 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 많은 건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 즉 초창년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체가 다시 지어진 경우 다시 건립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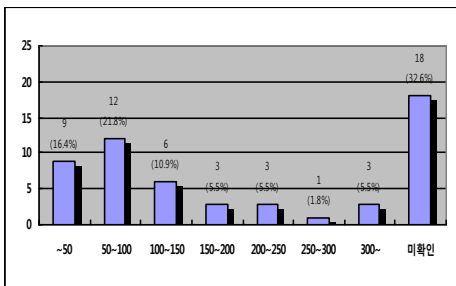
<그림 3> 신항리 큰새말 가옥별 건축년대

(2) 건축 면적⁵⁾

신항리 큰새말의 건축 면적을 보면 50㎡ 이하의 가옥이 9가옥으로 16.4%, 100㎡ 이하의 가옥이 12채로 21.8%, 200㎡ 이하의 가옥이 9가옥으로 16.4%, 300㎡ 이하의 가옥이 4가옥으로 7.3%, 300㎡ 이상이 3가옥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및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3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는 소규모 단독주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항리 큰새말 가옥별 건축면적

| 건축면적(㎡) | ~50 | 50~100 | 100~150 | 150~200 | 계 |
|---------|---------|---------|---------|---------|----|
| 가옥 수 | 9 | 12 | 6 | 3 | 55 |
| 건축면적(㎡) | 200~250 | 250~300 | 300~ | 미확인 | |
| 가옥 수 | 3 | 1 | 3 | 18 | |



<그림 4> 신항리 큰새말 가옥별 건축면적

(3) 건축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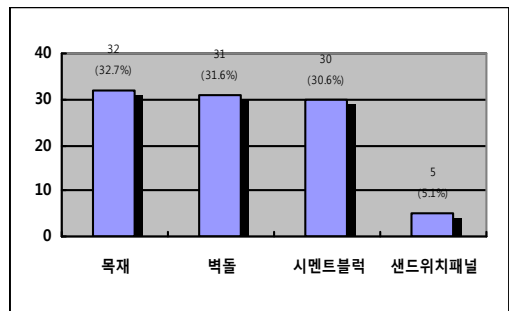
마을 내 가옥의 건축재료 분석은 가옥별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별로 분석하였다. 즉 분석범위 내에는 모두 55가옥이 있지만 건물 동수는 모두 98개동이 되는 것이다. 마을 내 가옥 중 가장 많은 건물을 지니고 있는 것은 6동으로 구성된 윤승구 가옥이고 작은 경우 1동으로 구성된 가옥도 있다.

신항리 큰새말 건축물의 재료는 크게 목재, 벽돌, 시멘트블록, 샌드위치패널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목재로 된 건축물 중에는 현대식 전원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주재료가 목재로 건축된 목조건축물은 32채로 32.7%, 벽돌로 건축된 건축물은 31채로 31.6%, 시멘트블록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30채로 30.6%, 샌드위치패널로 건축된 건축물은 5채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벽돌 및 시멘트블럭조는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벽돌 혹은 시멘트블록으로 수선하였음을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3] 신항리 큰새말 건축물 재료

| 재료 | 목재 | 벽돌 | 시멘트블록 | 샌드위치패널 | 계 |
|---------|----|----|-------|--------|----|
| 건축물수(채) | 32 | 31 | 30 | 5 | 98 |



<그림 5> 신항리 큰새말 건축물 재료

5) 건축면적은 가옥내 모든 건물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논문

(4) 지붕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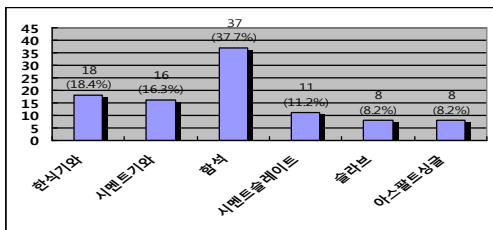
마을 내 가옥의 지붕재료 분석은 건축재료 분석과 같이 가옥별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별로 분석하였다.

지붕 재료는 합석이 37채로 37.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한식기와가 18채로 18.4%, 시멘트기와가 16채로 16.3%, 시멘트슬레이트가 11채로 11.2%, 슬라브 및 아스팔트싱글이 각각 8채로 8.2%를 차지하였다. 합석 지붕이 많은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후 지붕수선을 합석 및 시멘트슬레이트로 수선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농가들의 지붕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한식기와 18채는 모두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다.

[표 4] 신항리 큰새말 건축물 지붕재료

| 재료 | 한식기와 | 시멘트 기와 | 합석 | 계 |
|---------|-------------|-----------|-------------|----|
| 건축물수(채) | 18 | 16 | 37 | 98 |
| 재료 | 시멘트 슬레이트 | 슬라브 | 아스팔트 트싱글 | |
| 건축물수(채) | 11 | 8 | 8 | |



<그림 6> 신항리 큰새말 건축물 지붕재료

2-4. 신항리 마을 주거 변천

신항리 마을에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가옥은 1844년에 건립한 윤승구 가옥 안채이다. 이 가옥은 윤치호의 부친(현 가옥 주인 윤승구의 증조부) 윤용열이 건립한 것으로 이 마을 해평 윤씨의 종가이다. 마을 내 주택 중에는 조선

말기에 건립된 윤승구 가옥 외에 이보다 늦게 건립된 윤일선 가옥, 윤일선 가옥과 유사한 시기에 건립된 윤제형 가옥,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등이 가장 오래된 가옥에 속한다. 이 가옥 중에는 조선 말기의 건축기술과 근대시기 초기의 기술이 한옥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이 도입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2> 윤승구 가옥 안채 <사진 3> 윤보선 생가 안채



<사진 4> 윤일선 가옥 전경 <사진 5> 윤제형 가옥 안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승구 가옥과 윤보선 생가, 윤일선 가옥 전체가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가옥 배치였다고 한다. 또한 현재 공터로 일부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자리는 창고건물이 즐비하였다고 하며, 그 중앙부 남북으로 '헛뜰', 즉 비가 내릴 때에만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헛뜰이 흐르는 지점에 대문과 창고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 대문을 북대문과 동대문이라 불렀으며, 윤보선 대통령 생가의 대문을 남대문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런 배치적 특징은 큰새말만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가 중에는 1900년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몇 채의 건물이 있으나 대부분 살면서 지붕이나 벽을 보수하여 옛 모습이 변형되어 있다. 그러나 평면 형태나 기본구조에는

건립당시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붕의 경우 처음에는 초가였으나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또는 함석으로 변형되었고, 벽체는 목조에 흙벽이었으나 흙벽을 털어내고 시멘트 블록벽으로 변형하였다. 마을 내 민가는 조선 말기에 건립된 것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당시의 주택, 해방직후에 건립된 주택, 그리고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그 특징을 보여주는 주택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 6> 변형
가옥(벽돌+함석슬레이트)



<사진 7> 현대식 주택
(벽돌+슬라브+눈섭지붕)



<사진 8> 손영석
가옥(목조+시멘트기와)



<사진 9> 윤의선
가옥(목조+시멘트슬레이트)

조선말에서 일제시기에 걸쳐 지어졌던 민가는 목조를 기본 구조로 기와 또는 초가를 올려 건립한 것이다. 가옥의 배치는 대부분 안채+사랑채+광채 또는 안채+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은 각각 별동으로 하고 마당을 가



<그림 7> 박우현가옥
'ㄱ'자형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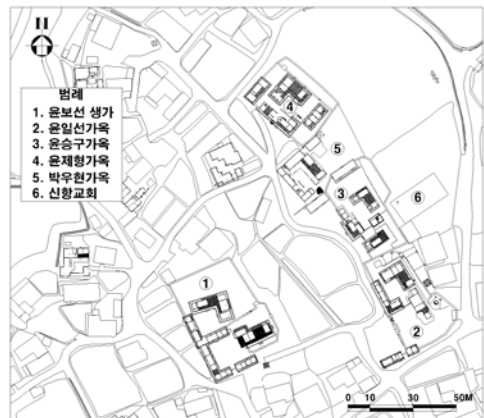
<그림 8> 정봉운가옥
'ㄷ'자형 배치

운데 두고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는 뜰집(중정식 배치) 형태의 배치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뜰집은 'ㄷ'자형, 'ㄷ'자형, 'ㄷ'자형으로 그 유형이 분류되는데 건물 주변에는 돌 또는 나무로 바자울을 설치하여 경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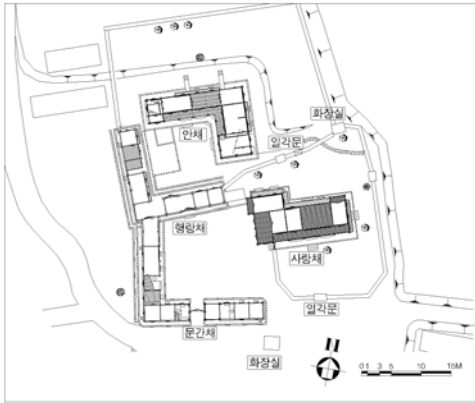
3. 신탄리 큰새마을 마을의 건축적 분석

3-1. 신탄리 마을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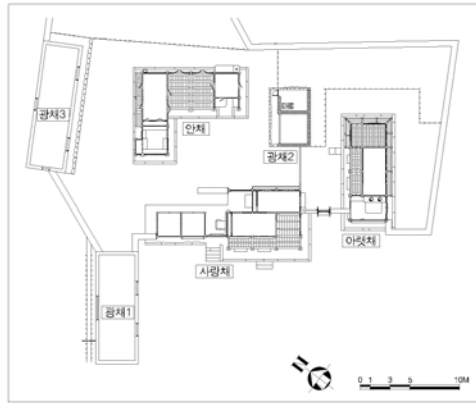
신탄리 마을에는 모두 4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나는 중요민속자료 제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1984년 12월 24일 지정), 두 번째는 충남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된 윤일선 가옥(1986년 11월 19일 지정), 세 번째는 충남도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된 윤제형 가옥(1986년 11월 19일 지정), 네 번째는 충남도 민속자료 제 15호로 지정된 윤승구 가옥(1990년 12월 31일 지정)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내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박우현 가옥과 같은 것도 있다. 이 가옥은 해평윤씨 종가의 별채로 1901년에 건립한 건물이다. 비록 일부 건물이 추가되고 부분적으로 변형이 있지만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주요가옥 위치



<그림 10> 윤보선 생가 배치도



<그림 11> 윤승구 가옥 배치도



<그림 12> 윤일선 가옥 배치도



<그림 13> 윤제형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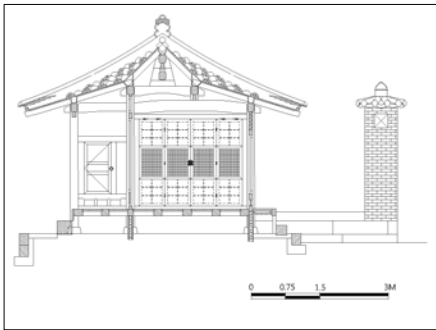
신항리 마을의 윤씨 가옥은 충청지방의 특징과 함께 근대시기 한옥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충청지방의 반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남지방 반가와 비교된다. 건축물이 점지하는 위치, 특히 살림집의 위치를 볼 때 대개 영남지방은 산지나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이 경사진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의 배치구조가 구릉지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충청지방을 비롯한 기호지방에서는 구릉지나 평지가 많아 이러한 지형에 잘 적응되도록 만들었다. 예

를 들면 반가의 경우 영남문화를 주도했던 안동권의 중요 민가는 대개 꼭 짜여진 배치구조인 반면 이 지역에서는 약간 여유 있는 배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신항리의 윤씨 가옥은 충청지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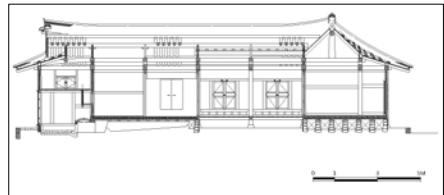
반가의 배치 및 평면을 비교해 볼 때 영남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안동지방의 반가에서는 ‘口’자 집으로 만드는 사례가 비교적 많다. 말하자면 사랑채와 안채, 익랑채를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시켜 만드는 것에 비해 기호지방, 특히 충청권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를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 이른바 ‘ㄱ’자 집배치가 비교적 많다. 말하지만 마당을 중심으로 ‘ㄱ’자

와 ‘L’자 건물을 약간 띄어 배치하거나 ‘一’자형 사랑채 뒤에 ‘ㄷ’자형 안채를 배치하는 평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가 안마당의 크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즉 안동지방 반가의 안마당은 충청지방 반가의 안마당에 비해 작다. 이는 구릉지라는 좁은 지형 조건에 맞추어 짝 짜여진 평면형태 인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전통적 공간구조가 관습화되어 전해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마당의 공간구조는 건축물의 단면구조에서 극명하게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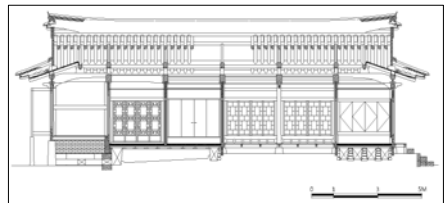
마당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안채의 높이도 안동지방 반가의 그것과 달리 현격하게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는 안마당이 크기 때문에 햇빛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트여있어 조망이 완전히 단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 후기가 되면 주택에서 정교하고 섬세한 장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림 14> 윤보선생가 안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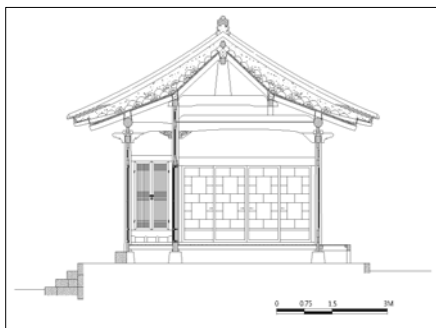
<그림 16> 윤보선생가 안채 횡단면도



<그림 17> 윤보선생가 사랑채 횡단면도

이를 나타내게 된다. 안동지방의 반가는 사랑마당보다 안마당의 높이가 높고 이에 따라 안채의 높이가 사랑채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 지

기둥의 모서리에 쇠시리⁶⁾를 넣거나 창호의 살이 화려해 지고 천정의 장식이 화려해 진다. 이러한 현상이 근대시기에 들어오면서 전통 주택건축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즉 부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간단하지만 기둥 모서리나 문설주 주변에 쇠시리가 나타나고,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는 부분에도 선을 넣어 장식하는 것이다. 신항리 반가에도 이러한 장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림 15> 윤보선생가 사랑채 종단면도

게 되는 것이다. 좁은 안마당에서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고, 또한 자연공간에 대한 시각구조를 좋게 하려면 안채가 높아져야 한다. 이에 비해 충청지방의 반가에서는 안마당의 높이가 사랑

6) 모서리 부분을 곡선이나 겹치는 곡선으로 모양을 내는 것을 말한다. 초석에서도 기둥이 놓이는 주좌 주변을 곡선으로 모양을 내는데 이러한 것을 쇠시리라고 하며 영어로는 몰딩(Molding)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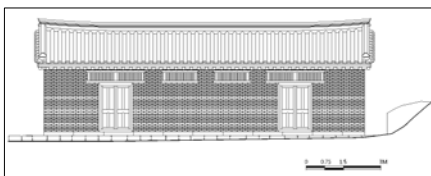


<사진 10> 윤보선 생가 안채 미루 하인방 모서리 장식
<사진 11> 윤보선 생가 사랑채기둥머리장식(익공)

뿐만 아니라 근대시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재료를 주택건축에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재료 중에는 벽돌과 유리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전부터 사용되기는 했지만 대규모 성벽이나 궁궐의 부속시설에만 사용했던 벽돌이 이제 주택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는데 하인방 아래 부분을 전부 벽돌로 돌리거나, 심지어 벽체를 전부 벽돌로 쌓아 만드는



<그림 12> 윤승구가옥 광채 벽돌구조



<그림 18> 윤승구가옥 창고 정면도(벽돌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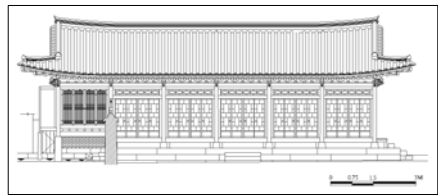
현상도 이 무렵에 건립한 신항리 반가에 보이고 있다. 굴뚝은 이미 오래전부터 벽돌을 쌓아 만들었고, 담장도 벽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근대시기에는 서양식 붉은 벽돌이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신항리에서도 서양식 붉은 벽돌이 주택

에 적극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리도 신항리 반가에 많이 사용되었다. 1900년 이후에 건립된 한옥 건물 중에는 거의 대부분 유리창호를 설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건축 기법과 서양으로부터 전해져온 새로운 재료가 신항



<사진 13> 윤보선 생가 사랑채 유리창호



<그림 19> 윤보선 생가 사랑채 정면도

리 주택에서 만나 그 동안 흔히 보아왔던 건축물의 모습을 바꿔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신항리 마을의 특징은 이처럼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전통과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이 건축양식과 건축기법에 잘 드러나 있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이 집단화 되어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신항리 큰새마을의 특징이라 하겠다.

3-2. 신항리 마을의 근대사적 의미

조선시대 전통적인 집성마을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와 시설물을 갖추게 되는데 그 첫째가 종가이고, 두 번째가 생산시설, 세 번째가 교육시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종교 의례

시설이다. 종가는 일족을 결합시키거나 가문 내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생산시설은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써 마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마을 주변의 농경지, 방앗간, 축사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 가내 수공업(삼베, 양잠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시설은 종법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시키며, 나아가 마을 주민의 사회적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서원, 정사, 서당, 정려, 효자비 등이 교육시설에 포함된다. 종교시설은 토속민속 시설인 서낭당을 비롯하여 사찰, 교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전통적인 집성마을은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근대시기가 되면서 농촌마을에는 전통적인 마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생산시설은 가내공업에서 대규모 공업생산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교육시설은 근대적인 학교시설로 바뀌고, 종교시설은 교회가 새롭게 마을 내에 건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사진 14> 1954년 이전의 신항교회



<사진 15> 1954년 신항교회 상량기념

신항리 마을은 집성마을은 아니지만 해평윤씨의 가세가 크게 작용한 집성마을과 다를 바 없는 근대시기의 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종가를 비롯하여 주변에 생산시설인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교육시설은 교회가 일부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종교시설로 교회가 마을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전통적인 마을이라기보다는

자족 능력이 거의 없었던 작은 마을에 해평윤씨 일족이 들어오면서 그 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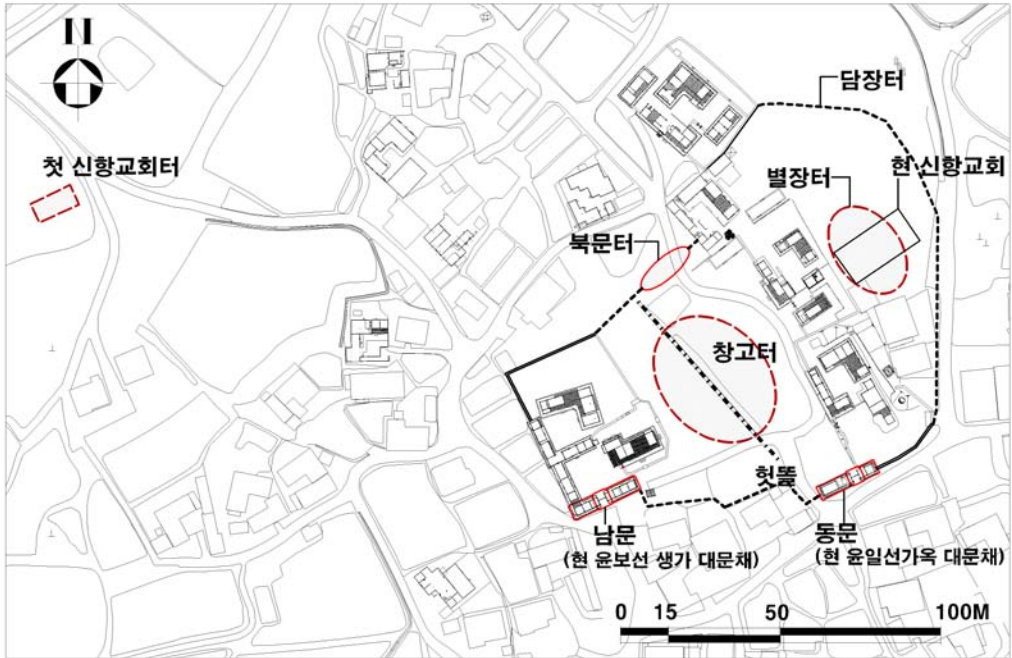
<사진 16> 윤승구가옥과 별장(1950년대 이전)



<사진 17> 윤승구가옥과 신항교회

한편 마을 내 전통적인 주거건축에도 근대시기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 건립된 윤씨 종가에는 사당이 건립되지 않고, 가세가 확장되면서 윤씨의 분가 현상이 마을 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1870~80년대에 입향조의 2남(윤영열) 가옥이 분가를 하면서(현 윤일선 가옥) 1901년에 종가에 덧붙여 부속채가 건립되고(현 박우현 가옥), 이어 1903~1907년에 영열의 2남(치소)이 종가 건너편에 분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가로 인해 신항리 큰 새말은 해평윤씨의 집성촌으로 변모되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건립되면서 종가와 사이에 담장과 문을 설치하여 마을 중심부는 마치 담으로 둘러싸인 성채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특이한 마을로 변화된다. 여기에 일찍이 윤씨 문중에서 토지를 회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를 건립하는 것도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해평윤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을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전통적인 마을이나 근대시기 마을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마을이 해평윤씨의 성채와 같이 만들어지기에는 당시 해평윤씨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



<그림 20> 옛 건물 및 담장, 대문 위치도



<사진 18> 마을전경

면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당시 해평윤씨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통적인 작은 마을이 근대시기에 접어들면서 한 집안의 성채와 같이 변모되는 이러한 현상은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한 집안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되어 마을 경관의 변화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마을 내 건축물은 대부분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로 마을회관, 교회 및 교회 사택, 정미소, 창고 등이 있다.

마을 내 건축물 중에는 중요민속자료 제 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비롯하여 윤일선 가옥(충남 민속자료 제12호), 윤제형 가옥(충남민속자료 제 13호), 윤승구 가옥(충남민속자료 제 15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가옥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윤승구 가옥 건립당시 함께 건립된 박우현 가옥과 같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가옥도 있다.

마을 내에 건립된 주택 양식은 조선후기 반가형태의 대농가를 비롯하여 일반 서민주택, 근대시기 농가주택, 산업화 시기 서민주택, 근래의 전원주택 등 격동기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담고 있다. 아울

러 해평윤씨 가옥들이 하나의 담장으로 둘러싸이고, 3대문을 설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독특한 배치방식으로 주목된다.

마을은 가까운 주변에 높은 산이 없는 구릉 지형 지리조건에 위치해 있어 풍수적으로 배산임수 청룡백호를 찾기 어려운 배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의 입지는 전통적인 풍수개념과 달리 주위를 감싸는 지맥이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첫째, 넓은 들에 조성된 농지 확보와 농경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도로사정과 교통수단이 편리해 지는 근대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에 해평윤씨가 신항리 큰새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면서 짧은 시간에 분가를 통해 마을 중심에 담장을 두르고, 각 방향에 대문을 두는 마치 성채와 같이 집단화한 것은 마을의 경관을 바꿀 정도로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을길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평윤씨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바탕이 배경이 되었다. 반가와 같은 대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마을 내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로써 일찍 마을 중심부에 교회가 들어서고 이로 인해 교회는 신항리 마을의 경관적 상징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 내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 집단화 되어 있고 이 주택은 조선시대 충청지방의 건축적 특징과 근대시기의 건축적 특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항리 큰새말 마을은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한옥이 근대시기를 맞이하면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집단화

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이 마을은 한국 근대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과 관련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 4곳의 가옥이 각각 별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가옥들과 함께 주변 경관 또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점차 공업생산시설이 잠식하고 있어 경관의 훼손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신항리 큰새말의 건축 및 경관 보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여지도서(輿地圖書)』, 1759
2.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
3. 김정근, 『내고향 신항리, 그 삶의 터전』 흥문상사, 2007
4. 온양문화원, 『온양 아산 마을사』 제2권, 온양문화원, 2001
5. 아산시,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및 주변 문화재 정비·활용계획』, 2005
6. 아산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및 주변 민속자료 정비 기본설계』, 2006
7. 아산시, 『아산시 개화기 인물 연구 및 유물조사』, 2008

접수(2009. 12. 15)

수정(1차: 2010. 2. 18, 2차: 2010. 3. 9)

게재확정(2010. 4. 5)

A Study of Architectural Features on Keunsaemal Asan Sinhang-ri

(Birthplace of Former President Yun Bo-seon Village)

Lee, Wang-Kee

(Professor, Mokwon University)

Kang, In-Gu

(MSc., Mokwon University)

Moon, Tae-Mo

(MSc., Mokwon University)

Song, Yeon-Ah

(MSc., Mokwon University)

Abstract

Keunsemal, Sinhang-ri, Dunpo-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is where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Yun, Bosun was born. The houses of Yun, Il-Sun, Yun, Je-Hyung, Yun, Seung-Gu, and where the former President Yun was born ar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three houses of the Yuns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village and the size is much different from regular houses since they were created as large scale house of nobilities during the Chosun Dynasty. Along with the three Yun houses and other houses in the village show a great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history and modern times.

Unlike other traditional village arrangement, this village was created during the end of Chosun Dynasty and extended into the modern times. From the village, you can see the changes in architecture within the 200 years from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s to modern houses.

This investigation is a research /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Keunsemal, Sinhang-ri, Asan-si.

People can observe changes in the different types of architectural forms of houses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 and time periods. Within the village, there are large scale house of nobilities which were built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common people's houses, farmhouses which were built during the modern times, common people's hous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and modern houses with backyards.

The village of Keunsemal, Sinhang-ri, Asan-si is a very special cultural asset for Korea because the houses in the village show a clear architectural process of change in styles of houses for Korean history.

keywords: Yun Bo-seon, Sinhang-ri, Modern Town,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